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mbodiment-Factors of the Sense of Place in Interior Space

—focused on residential environment—

류호창*/Lyu, Ho-Chang

Abstract

Architectural works built with a modernistic viewpoint led to standardization and loss of peculiarity, and which resulted in isolation of people from their environment. In that context, the sense of place can be a new paradigm replacing modernism and reflect the fundamental value and meaning of architecture. Interior space as a place can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existentialis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concept of place based on C. N. Schulz's theory of space, and aims at embodiment of the sense of place in interior, especially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applying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help

to form and enhance the sense of place are center, axis and direction, and boundary and enclosure. Some psychological factors, in other words, people's psychological needs, affect the continuance of the sense of place, especially in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we reside comparatively for a long period and use the same place repeatedly. Those factors are needs for control, privacy, identity, security, hierarchy/order, aesthetics, variety, and sociability. The sense of place is embodied and lasted mainly by personalization through the process of visualization, symbolization, and complementation of above mentioned properties and elements.

1. 서론

근대 건축은 관념적 순수주의를 지향하며 너무 추상적으로 진행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하나의 관념적인 형태가 모든 형식의 건축에 적용된 문제점의 하나로 '장소성의 상실'이 자주 지적된다. 어디를 가나 거의 유사한 획일화된 환경은 사람들의 거주성 상실과 함께 인간의 상상력과 자의식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 환경으로의 소속감을 상실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건축이 진정 거주자를 위한 공간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주자가 주어진 환경에 의해 지배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획일성에 대한 거부는 60년대에 이르러 다원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다원론적 건축 또한 그것이 피상적으로만 해석될 경우 환경상의 혼돈이라는 위험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포스트모던으로 지칭되는 현대건축의 한 흐름에서 이런 문제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런 위험은 공간의 성격과 공간구조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피해될 수 있는데, 공간의 장소성의 재해석을 통한 거주자 중심의 공간 창출이 그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밀접되어 있는 주거공간에 초점을 두어 포괄적 개념인 장소성 구현 요소를 다시 규명해봄으로써 실내디자인에의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을 통해 공간 개념의 변천 과정 및 공간의 장소화과정을 고찰해본 후, 실내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장소성 구현요소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장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공간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이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슐츠(C. N. Schulz)의 실존적 공간 개념을 근간으로 다루기로 한다.

2. 공간론

2-1. 공간 개념의 고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공간을 '모든 장소(Topos; place)의 총화'로 해석하고, 모든 감각적 유기체는 장소를 갖고 있으며, 상하, 좌우, 전후의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치에 대해서 최대의 중요성을 두고있다.¹⁾ 하지만 공간 개념이 예술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것은 리글(Alois Riegl)의 예술의지(Artistic Volition; Kunstwollen)가 소개된 1901년 이후부터이다.²⁾ 리글은 예술 의지를 최고의 선험적 조건으로 보았으며,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예술 의지의 원천은 공간 개념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험주의자인 버클리(G. Berkely)는 공간은 순수한 주관이며 시각과 촉각에 의한 감각적 지각 작용의 특수한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으며, 하이데거(M. Heidegger)는 건축적 공간의 개유성을 사물이 장소를 형성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유성은 장소에 내재된 특성을 의미한다.³⁾

1) 우수영, 현대건축공간에서 표현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90, p. 13.

2) Van de Ven,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역, 기문당, 1987, p. 10.

3) 김광현, 공간에서 장소로, 건축학회지 22권 82호, 1987, p. 28.

*정회원, 건국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본 논문은 1995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수혜에 의한 것임.

건축적 공간은 다시 지각적 공간과 실존적 공간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니취케(G. Nitschke)는 우리가 지각하는 공간은 인간을 그 중심으로 하여 인체운동과 함께 변화하는 방향체계를 갖고 있어 유한하고 균일하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지각된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⁴⁾

건축 공간을 운동적인 시각으로 본 힐데브란트(A. Hildebrand)는 공간적 제한으로서의 형태개념을 공간개념으로 보고, 두 가지 지각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즉 관찰자의 위치와 대상물이 함께 정지해 있을 때 생기는 순수 영상과 관찰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운동적 시각을 통해 수용하는 역동적 영상으로 공간이 지각된다는 주장이다.⁵⁾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일반적인 3차원의 공간 개념을 확대시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4차원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4차원인 장(場 : Field)으로서의 공간은 경험의 소산으로 인식되며, 공존하는 사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로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슐츠는 지각적 공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건축적 공간을 체계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각적 공간해석은 단지 건축적 체험을 뜻할 뿐이며, 건축적 공간의 방향이 인체의 운동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중심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실존적 공간론을 설명하고 있다.

2-2. 실존적 공간개념

실존적 공간개념은 인간의 여하한 행동도 공간적 양상 - 실재적(實在的)인 공간 - 을 지닌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즉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정확히 한정된 공간적 틀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포괄적인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특정 장소와 인식된 대상을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장소에 속한다는 것은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의 의미있는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도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적인 공간이 갖는 실존적인 성질을 강조하면서, 공간의 존재는 장소로부터 받게 되며,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와 공간과의 관계는 주저에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존적 공간개념은 추상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이 있다. 추상적인 측면은 위상기하학적(Topological) 또는 일반 기하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관계되며, 구체적인 측면은 자연경관, 건축물, 물리적인 사물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는데 관계되는데, 실존적 공간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⁶⁾ 인간은 자신의 개별적 존재를 자연 및 인간적 차원들의 복합체에 관련시킴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확인행위를 경험한다. 확인은 하나의 선택 혹은 방향설정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설정이란 포괄적인 공간 - 시간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경험되는 것을 뜻한다. 경험되는 모든 의미들은 실존적 공간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것은 인간 행위의 틀을 형성한다. 여기서 실존적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용어로 정의되는 지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된 특성, 과정, 상호관련성들에 의해 함께 결정된다.

3. 장소론

3-1. 장소개념

인간은 공간 내에서 행동하지만 공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단지 공간은 장소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의미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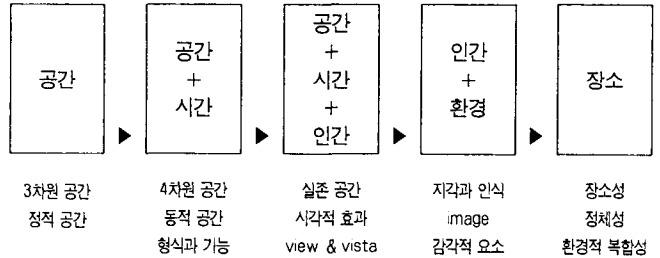
4) C. N. Schulz, 실존 · 공간 · 건축(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pp. 20~21.
5) 우수영, op. cit., pp. 23~24.
6) ibid., p. 32.

여할 수는 없고, 의미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장소는 일종의 대상(object)으로 공간을 한정하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나타낸 말이다. 즉 우리는 공간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장소라는 구체적 개념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다. 슐츠는 그의 장소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실존주의를 현상학과 더불어 그의 주요 철학적 원리로 도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학은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을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환경현상학을 의미한다. 인간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은 자신이 놓여진 상황과 실존적 공간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실존적 공간은 곧 장소적 개념을 가능케 하는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장소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행위는 곧 구체적이고 현상적으로 의미깊은 장소의 창출을 의미한다.

3-2. 공간의 장소화 과정

사람들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에 대응한다. 공간과 장소는 종종 의미가 합쳐지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은 장소보다 더 추상적이다. 공간이 장소화되기 위한 과정은 우선 시간적 요소에 기본을 두고 있다. 공간은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즉각 경험된다. 공간이 우리의 움직임 가능하게 한다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방향감을 얻게 되고, 시간적 요소가 개입된다. 즉 시간이 공간 구성의 중요 요소로 생각될 때 공간의 장(場)개념이 생성된다.⁷⁾ 시간적 개념이 도입된 공간은 그 공간을 느끼는 주체, 즉 인간이 개입됨으로써 실존적 의미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형성된 공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적 특성이 부여됨으로써 장소화된다.

(표1)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는 과정⁸⁾



3-3. 장소성

장소성, 또는 장소의 정신(A sense of place)이라는 말은 곧 장소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어떤 속성을 표현한 말이다. 각 장소는 하나의 큰 맥락 속에 존재하지만, 각 장소는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자신만의 의미와 질서를 가짐으로써 정체성이 형성된다. 장소들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다른 장소들과의 경쟁, 시각적 탁월감, 주의를 끄는 예술품과 같은 대상, 의식과 의례 등이 그 예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장소에 구체적인 성격을 부여하려 하는데 그것은 곧 장소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런 장소의 성격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공간의 질서 및 특성, 빛, 시간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요소들은 시각화(visualization), 상징화(symbolization), 보완화(complementation)의 과정을 통해 장소성을 이루게 된다.⁹⁾

건축공간에서의 장소성 창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찰스 무어는 그의 저서 '주택의 장소성'에서 주택은 장소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이어야 하고, 거주자 각자에게 있어서 주택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

7) 함정도, 실내디자인과 에토티시즘, 기문당, 1993, p. 88.
8)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벽의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 23, 재인용
9)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의 이론과 구성체계 요소의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3호, 1994, p.82.

다. 건축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소성이고, 형태는 변할지라도 거주자에게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장소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⁰⁾

3-4. 장소성과 시간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심상에 기억되는 장소는 그 형성과정에서 논리적 질서를 지니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시간적 질서이다. 장소의 기본적인 의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이동으로부터의 정지를 의미한다면, 장소성은 시간의 두 가지 의미 - 경과적 의미의 시간과 '때'의 의미의 시간 - 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출이나 일몰, 때에 따라 변하는 거리의 소음,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전망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과 그림자 등이 주거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때'의 의미로서의 시간적 요소이다. 장소는 이런 자연적, 인공적 시간의 리듬들과의 조화로 이루어진다.¹¹⁾

사람들의 감정적, 심리적 요소들이 장소성 형성에 개입될 경우 경과적 의미의 시간과 연관이 많다. 일반적으로 장소로부터 친숙한 느낌을 얻거나 애착을 느끼는데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혹 짧은 시간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도 얻어진다. 주거공간의 경우 너무 강한 자극적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때, 일상의 규칙적 행동이 특정 장소와 반복되어 결합하여 애착을 느끼게 되므로 비교적 오랜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

4. 장소성 구현 요소

4-1. 공간적 특성

장소 구조의 설명은 유형학이나 형태학에 관계한 공간적 질서와 구체화된 성질의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유형학은 일반적으로 장소 구조의 더욱 추상적인 측면과 관계되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의 기능성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유형의 분석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소와 상호관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유형학은 설명의 도구로써 계슈탈트 원리 - 일반적으로 근접성과 폐합성 원리 - 와 기하학을 사용한다. 근접성에 의한 장소란 여러 요소의 근접화에 의해 형성된 장소를 의미하고, 폐합성에 의한 장소성은 주위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¹²⁾

장소는 구체적으로 공간의 한정, 융합, 집중, 및 방향성의 조절을 통해 인간이 정위하며 거주할 수 있는 아늑함, 친밀감,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장소는 큰 공간을 형성하는 작은 중심체로 형성성이라는 환경적 이미지 및 의미와 질서를 지님으로써 공간을 형성시킨다. 어느 공간이 장소화되기 위한 중요한 건축공간적 특성으로는 중심, 축과 방향성, 경계와 에워쌈(enclosure)을 들 수 있다.

1) 중심 : 혼돈(chaos)의 상태에서 질서(cosmos)의 상태로 옮겨지는 장소형성의 과정에는 중심이미지(center image)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된다. 중심은 모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로써 사람들에게 중심 이미지는 장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달리 말하면 중심을 갖는 최소단위가 곧 장소인 것이다. 건축적인 정의로서의 중심을 린치(K. Lynch)는 결절점(node)이라고 표현하며, 관찰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초점이며, 그 전형적인 것은 통로의 접합점 또는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 집중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사람들에게 중심은 미지의 두려운 주변환경에 상대적인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 즉 장소는 주변의 외부에 대조적인 내부로 느껴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비교적 작아야 한다. 그런 장소의 크기제한은 자연스럽게 유심적 형태를 띄게 되고, 따라서 장소는 기본적으로 원형이다.¹⁴⁾

건축의 최초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원시원형주거(round hut)나 여러 개의 석주를 원주상에 세워 울타리를 만든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로마시대의 마르셀루스(Marcellus) 극장이나 콜로세움(Colosseum)의 원형 평면, 르네상스시대의 거대한 돔 구조 등 원형의 강한 유심적 형태는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¹⁵⁾

이런 중심의 역할은 대부분 구심적인 의미로 장소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그 중심을 출발점으로 하는 강한 원심적인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구심적인 힘과 원심적인 힘 사이에 생기는 긴장감이 장소의 본질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중심의 대표적인 표현방법은 첫째 공간에 상징적인 대상(object)을 배치하여 구심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에 구심성을 상징하는 배치를 하는 것이다. 주거공간에서 전자의 예로는 공간에 놓인 조형물이나 가구, 벽난로 등이 해당되고, 후자의 예로는 적당히 폐쇄된 형태 - 특히 원형 - 로 배치된 기둥들이나 벽, 연속된 가구 등이다. 구체적인 예로, 찰스 무어(Charles W. Moore)가 1960년대에 들어 설계한 많은 주택작품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집 속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에디쿨러¹⁶⁾는 큰 공간 속에 작은 공간을 형성하여 실내공간에서 강한 중심의 역할을 하며, 거주자에게 상징적인 쉼터로써 심리적으로 영역성,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1)



〈그림1〉Charles W. Moore, 1962, Moore House, Orinda, Ca.

2) 축과 방향성 : 장소성은 보다 넓은 전후관계에서 존재함으로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즉 장소는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공간 속에

10) Charles W Moore, The Work of Charles W. Moore, გამომცემ사, 1985, p. 104.

11) Yi-Fu Tuan, 공간과 장소 (정영철 역), 태림문화사, 1995, pp. 223~245.

12) C.N.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pp. 88~89.

13) ibid p. 88.

14) C. N. 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윤재희 역), 세진사, 1984, p. 461.

15)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1988, pp. 6~9.

16) 에디쿨러(aedicula)는 원래 고대 이집트 및 로마시대의 규모가 작은 사당 또는 작은 신전을 의미. 이후 페디먼트와 기둥 등으로 주위가 둘러싸인 공간이나 니치(niche)를 의미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의 건물에서 창이나 문의 주위를 페디먼트, 엔테블러처, 원주 등으로 장식하여 신전의 정면을 모방한 것과 같은 건축성도 에디쿨러라고 불리운다.

위치하는 것이므로 모든 장소는 방향을 내포한다. 방향들은 중력 및 방위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관계하며 여러 성격을 나타낸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가장 간단한 모델은 수직축을 관통하는 수평축의 만남이다. 수직축은 상승 및 하강을 나타내며, 신성함을 표현한다. 건물의 기둥과 같이 중력과 맞서는 의미의 수직방향은 자연정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인간의 창조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직성이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수평방향은 인간의 구체적 행동세계를 나타낸다.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사람들은 통로를 만든다. 통로는 특정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실존적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매우 강한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통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 사이에서 작용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로는 반드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여러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강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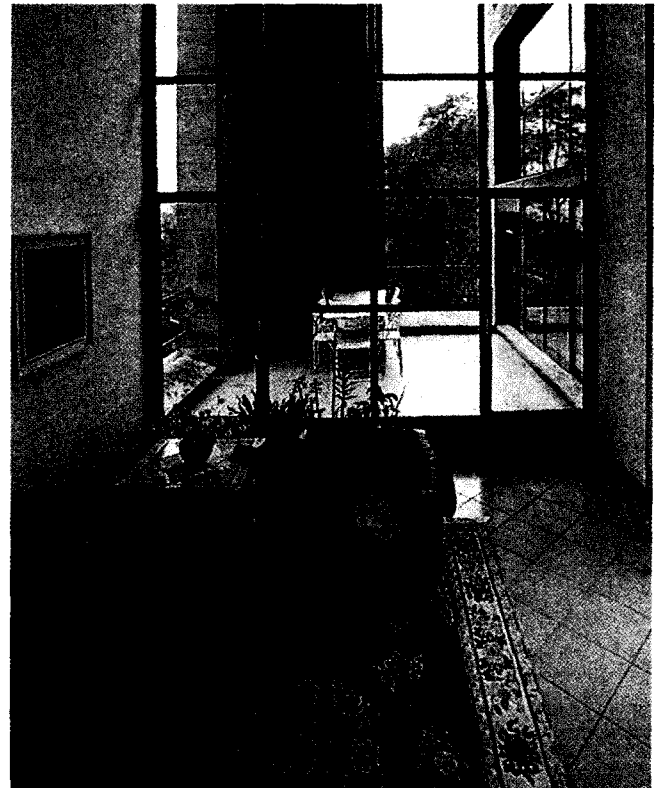
모든 건물은 목표나 진로에 의한 공간의 구축이며, 모든 집은 건축적으로 구축된 진로이다. 즉 연속적인 공간적 실체를 통하여 입구로부터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공간의 구축적 형성작용에 의해 특별한 운동의 가능성과 그 운동의 경향이 예정되어지며, 그리하여 그 곳에 있는 사람은 일정한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¹⁷⁾ 자연도 구체적으로 인간이 정위(orientation)하는데 필요한 방위나 자연경관과 같은 실존적 공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성은 이런 방향성이 집중될 때 만들어진다. 축과 방향성은 곧 중심성과 직결된다. 수직적인 방향성이 강조된 공간이 수평적인 방향성과 교차하는 곳, 강한 수평적 방향성이 교차하는 곳은 대부분 기능적인 중심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심리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경계 및 에워쌈(enclosure) : 장소는 경계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범위가 정해지고 경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여기'라고 하는 장소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곧 어떤 공간을 한 장소로 변형시킨다. 한 공간이 특정인에게 속한 영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은 주변 공간과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게 한정된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남에게 우리 장소가 어디며, 얼마나 크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려준다. 그런 경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공간을 물리적으로 에워싸는 방법과 함께 일련의 가구나 기둥, 오브제 등으로 구역을 경계/분리하는 방법, 공간의 형태-예로 알코브나 구석진 곳-를 이용하는 방법, 바닥이나 천장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 빛·색채·패턴·재질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공간은 에워쌈의 정도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고, 그것은 장소의 심리적 요구조건의 하나인 안정감이나 편안함과 직결된다. 사람들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적당히 에워싸인 공간에서 안락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공간의 에워쌈은 대부분 벽에 의해 이루어지고, 벽은 공간을 한정·융합·집중하며 방향성을 갖게 하여 장소를 형성시킨다. 경사진 천장, 계단 밑의 공간, 알코브공간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장소로 간주되는 것은 곧 그 공간이 적당히 에워싸여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주된 공간으로부터 분리, 경계지워진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로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많은 주택 작품은 벽에 의한 에워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벽에 의해서 외부와 내부가 분명히 구별되고, 실내공간도 그 벽에 의해 공간의 형태가 구성되고 성격이 분명해진다. 리버 산 비탈레 주택(one family house at Riva San Vitale, 1971~3)의 경우 계단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인 중앙집중형의 평면을 이루면서 다분히 폐쇄적인 장소성을 표출하고 있는데, 허공에 매달린 오픈된 브릿지를 통해 대조적으로 폐쇄적인 건물로 유입시킴으로써 주택으로서의 장소성을 상승시킨다. 실내공간은 피막처

럼 둘러싼 외벽으로 인해 매우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모든 방의 한 면이 오픈된 테라스로 연결되거나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체된 개방감도 확보하고 있다.(그림 2)



(그림2) Mario Botta, 1971-73, One Family House at Riva San Vitale, Ticino, Switzerland.

4-2. 환경심리적 요소

장소는 단순히 실존적 의미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으로만 해석되기보다는 건축적 체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장소의 특이인 '분위기'는 거주자와 그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상호작용에는 거주자의 감정적, 심리적 요인들이 개입한다. 즉 물리적 건축요소를 이용한 장소의 창출은 심리적 요소를 배려함으로써 완성도가 높아진다. 특히 장기간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경우 다른 환경에 비해 심리적 요소가 장소성 형성 및 유지에 더 크게 작용한다. 주거환경에서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환경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소속감은 장소의 심리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다루는 심리적 요소는 거주자의 관점에서 본 실내환경에 대한 욕구(Needs)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 장소성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된다. 거주자들의 환경-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로는 통제성, 프라이버시, 정체성, 안전성, 위계성, 심미성, 다양성, 사회성 등에 대한 욕구 등이다.¹⁸⁾

1) 통제성(control) : 사람들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환경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영향을 주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를 원하는데, 이런 동기를 통제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통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타의 욕구도 만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통제 욕구는 다른 모든 욕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공간에 대한 통제 욕구는 개인의 영역(territoriality)의 확보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데, 영역은 연속된 기둥, 벽체에 의한 에워쌈의 정도, 바닥의 고

17) C. N. Schulz, 실존·공간·건축(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pp. 22~23.

18) Stuart Miller & Judith K. Schlitt, Interior Space, Praeger Publishers, 1985, p. 3.

저차, 조명·색·질감의 변화, 가구 등을 이용해 확보/조절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간의 폐쇄정도, 조도, 음향 및 소음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2) 프라이버시(privacy) : 개인적 필요나 상황에 따라 적당히 프라이버시를 확보시켜주는 것은 공간이 장소화되는 한 과정이 된다.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정보의 통제, 개인행동의 불간섭,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일시적 도피 등을 포함하는데, 감각적으로는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와 함께 후각적 프라이버시까지 포함된다. 벽의 폐쇄성이나 방의 형태·방향, 가립막의 높이, 조명과 음향의 조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3) 정체성(identity) :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다른 대상으로부터의 차별화를 의미하며, 그 스케일에 있어서는 국가, 도시, 건물, 실내공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장소의 동일성은 인간적 동일성을 의미한다. 주거환경의 경우, 그 환경의 자기화(self-identity)과정¹⁹⁾ - 특정 공간에 대한 강한 애착심의 형성, 자아표출로서의 공간 차별화, 환경을 통한 자신감 확보 - 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는 바로 공간의 장소화로 연결된다. 슬츠도 이러한 정체성이 장소성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하였다. 지역적 정체성이 공간의 특성으로 사용될 때도 그 공간은 강한 장소성을 갖게 된다.

4) 안전성(security) : 현대적 환경이 거주자에게 친밀감이나 정위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될 경우 그것은 곧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직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적당히 에워싸지고 명확히 경계지워진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장소의 폐쇄정도에 따라 안전에 대한 민감하고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안전에 대한 감정은 색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차가운 색 계열이 일반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하지만 선형적인 면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로부터의 인용이나 연상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구적인 기분을 줌으로써 안전감을 준다고 한다.²⁰⁾ 사고나 위험, 불의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safety)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위계성(hierarchy/order) : 위계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질서적 순위를 함축한다. 위계를 형성하는 것은 형태적, 공간적, 또는 양쪽 모두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장소는 다양한 종류의 위계를 지닌 중심들에 의해서 일차적인 질서가 부여된다. 장소에 부여되는 질서로는 공간적 질서, 시간적 질서, 의미적 질서, 정서적 질서로 구분하여 생각될 수 있다.²¹⁾

공간적 질서는 한 장소 내에서 존재하는 시각적인 정연함의 질서로서 크기, 형태, 배치에 의한 질서이다. 시간적 질서는 한 장소 내에서 또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과 연관이 된다. 이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고, 목표로의 진행과정은 시간적 질서를 갖게 된다. 의미적 질서는 한 장소가 속한 문명권의 문화적 체계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징들에 의해 표현되고, 상징들은 서로 복잡하지만 위계적으로 연관되어있어 중층적 질서를 갖는다. 한 장소의 정서적 색조는 장소 전체와 장소의 부분부분들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색조들이 총체적으로 작용되어 복합적인 질서를 갖고 이루어진다.

6) 심미성(aesthetics) :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통해 발생하는 생성적 질로서의 아름다움도 의미한다. 우리가 건축환경에 대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될 때 이루어진다. 특히 주거공간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특정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느냐하는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감정이입이 미적 즐거움의 원천이다. 형태, 스타일, 재료, 조명, 색채, 공간형태 등 모든 것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지역, 인종, 과거의 기억 등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용자 중심을 의미하고, 사용자 중심의 조화와 창의성과 결합된 아름다움이 독자적인 최상의 표현이 된다.

7) 다양성(variety) : 여기서 다양성의 의미는 시각적 의미기보다는 공간기능이나 환경적 자극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공간/기능/의 복합성을 통해 만족된다. 벽이나 경계에 의해 여러 개로 구획된 공간은 단순하게 하나의 성격으로 구획된 공간에 비해 더 많은 환경적 자극을 제공하여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통일성과 복합성의 균형은 유지해야 한다. 한 공간내의 기능적 복합성은 융통성있는 공간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가변적 건축 구획, 다기능적 가구, 융통성있는 영역분할기법 등이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람들은 감정, 행동 등에 제약을 받을 때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실내공간에서 행동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동기부여의 하나가 된다. 공간과 기능의 다양성은 자유로운 행동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제한된 공간내에서 개인활동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간이 폐쇄적일수록 사용자에게는 활동 선택의 폭이 커진다.

8) 사회성(sociability) : 주거공간은 구성원간의 사회성 욕구 - 사교 욕구 - 를 만족시켜야하는 장소이다.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구심적 형태를 취하고, 전체 공간에서 중심의 역할을 한다.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공간은 개념적으로 모서리나 각도에 의해 몇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인식되는 반면 원형의 공간은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감지된다. 사람들은 디자인요소에 의해 한정되고 경계지워진 편안한 공간을 공유할 때 공동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로 거실내 집중된 좌석배치는 대부분 공간의 초점으로 작용하며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가 된다.

4-3. 실내디자인 요소

실내공간의 장소성은 공간을 한정하고 특성지우는 모든 디자인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는 벽·천장·바닥·기둥, 초점으로서의 가구, 빛의 유입 및 조망을 위한 창, 재료의 질감·색·패턴, 조명 등의 실내디자인 요소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벽/천장/바닥/기둥 : 벽은 대표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효과가 크고, 경계를 분명히 한다. 벽은 공간을 한정·융합·집중하며 방향성을 갖게 하여 사람이 그 곳에 있게 될 때 장소를 형성시킨다. 벽을 통해 구현된 장소는 벽의 차단기능, 위요기능, 폐합기능을 통하여 장소의 특성을 갖게 된다.²²⁾

심리적 안전함, 프라이버시, 영역의 확보는 주로 벽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스(Mies van Der Rohe)의 투겐하트 주택(Tugendhat House)의 매우 개방적인 계획에서 벽과 벽으로 에워싸인 공간이 어떻게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림 3> 연속된 기둥은 방향성을 나타내기도하고, 영역을 구획하기도 한다. 공간내의 기둥은 시각적, 심리적 중심의 역할을 하여 그 주위에 가구배치가 집중되기도 한다. 천장이나 바닥의 높이의 변화를 주는 것도 영역의 구분을 도와주고, 장소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예로 바닥의 단차를 이용한 플랫폼, 천장의 고저차는 심리적 안정감과 영역성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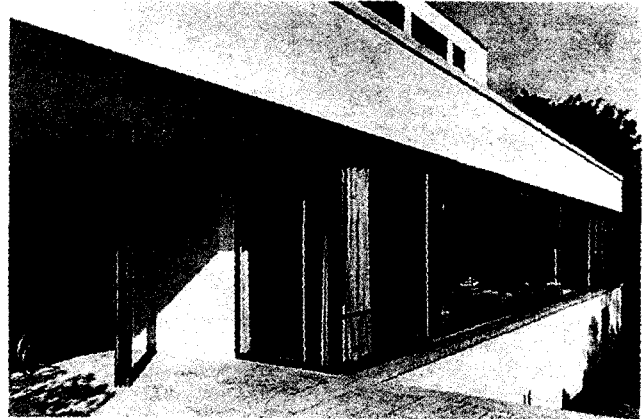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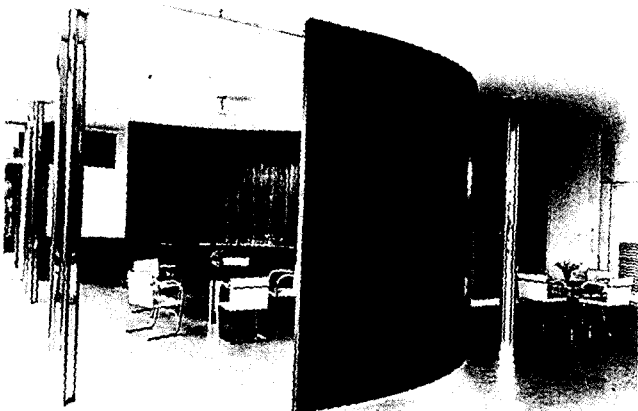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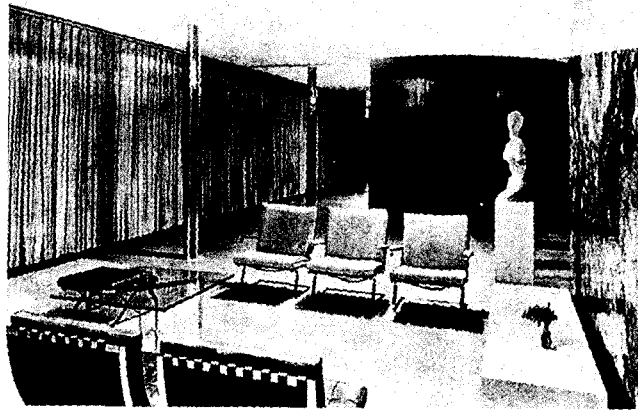
2) 가구 : 인간은 건축과 가구 사이에 있다. 가구는 공간적인 초점으로

19) ibid., p. 47.

20) ibid., pp. 73~74.

21) 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p. 37~53.

22)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벽의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 59~65.



〈그림3〉Mies Van Der Rohe, 1930, Tugendrat House, Brno, Czechoslovak.

서, 인간과 환경사이의 중재자로서, 의미있는 것들의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특성을 지닌다. 초점으로서의 가구는 주위공간의 추상성을 나타낸다. 가구는 인간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동시에 주위로부터 건축적 요소를 흡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형태적으로 건축보다 더 자유롭고 민감하게 내부공간의 성격을 형성하여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4〉

3) 창 : 창을 통한 빛과 전망은 자연적 리듬과 밀접하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공간은 매 순간마다 특성을 부여받으며 장소성을 형성한다. 창을 통한 빛과 건축구조의 관계에 의해 공간의 특성이 결정된다. 빛은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통일감을 강조하는 수단이 된다. 계절과 그 날의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우리가 특정 장소에 있다는



〈그림4〉David Chipperfield, 1987, Knight House, Richmond, Surrey, U.K.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모든 공간은 자연의 빛을 필요로 하며, 그런 빛이 없다면 공간을 정의할 수 없다고 칸(Louis Kahn)은 빛과 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³⁾ 구체적으로 창의 방위, 전망, 창의 크기 및 형태, 창의 위치 및 그에 따른 그림자 효과 등이 장소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그림 5〉

4) 재료의 질감·색·패턴 : 재료의 질감이나 색은 감정적 효과와 함께, 대비효과에 의해 영역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장소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예로 리트벨트(G. Rietveld)의 슈뢰더 주택(Schr der House)은 전체적인 공간이 흰색과 회색, 검은 색의 요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인 장소를 구성하는 대상들은 특별히 색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벽의 일부분과 바닥, 가구 등이 검정, 노랑, 파랑, 빨간 색으로 채색되어 그 공간은 색으로 인해 강한 장소감이 만들어지고 있다.²⁴⁾ 〈그림 6〉데 스틸 운동은 그 출발점의 하나가 인간과 환경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상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그들은 색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직접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들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촉감을 즐길 수 있는 물건이나 표면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영향을 주어 특별한 의미를 준다. 홀(E. T. Hall)에 따르면 촉감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질감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재료의 색이나 패턴의 대비와 함께 질감 대비는 자주 영역이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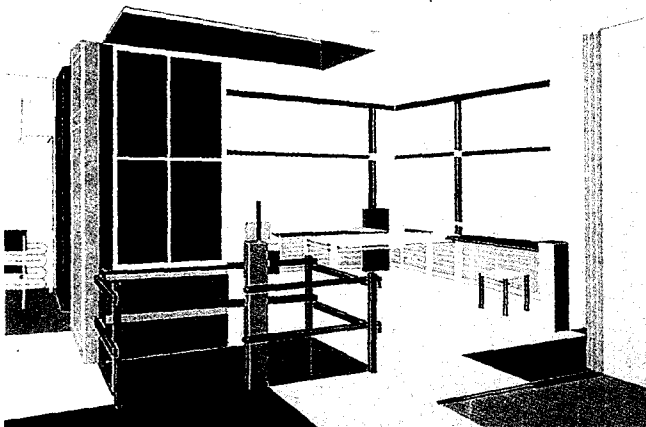
5) 조명 : 건축공간이 주간에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주로 의존하여 공간의 특질을 부여받는다면 야간에는 인공조명에 의해 성격이 형성된다. 조명은 주관적인 느낌의 변화인 공간의 분위기 조성에 가장

23) C. N. 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진경돈, 이정국 역), 미건사, 1994, p. 205.

24) ibid, pp. 143~148.



〈그림5〉Tadao Ando, 1982-4, Iwasa House, Ashiya, Hyogo, Japan.



〈그림6〉G.Rietveld, 1924, Schröder House, Utrecht

중요한 요소이다. 조명은 재료의 색과 질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용도와 성격이 분명한 조명은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조명에 따라 공간감의 확장 또는 축소가 이루어지고, 조명의 심리적인 영향력은 사람들의 행동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6) 기타 : 장소성은 대부분이 사람들의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지만, 청각적 요소나 후각적 요소들도 장소에 대한 기억을 도와주고 장소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특유의 소리가 장소와 연관되어 오래 기억되는 예는 흔히 있다. 음악,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등 여러 소리가 장소와 결합되어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의 소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종 특별한 냄새와 연관된 장소가 소리나 모습과 연관된 장소의 기억보다도 훨씬 깊은 경우도 있다.²⁵⁾

25) Stuart Miller & Judith K. Schlitt, op. cit., p. 49.

〈표 2〉 실내디자인 요소와 환경심리적 요소와의 상관관계²⁶⁾

실내디자인 요소	환경심리적 요소	공간적/기능적 특성
벽	프라이버시, 안전성, 위계성	공간의 한정, 경계 형성, 방향/축의 형성, 정보의 통제, 소리 및 빛의 조절
천장	위계성, 안전성	경계 형성, 공간의 한정
바닥	위계성, 안전성, 통제성	경계 형성, 공간의 계층적 질서 제공
기둥	위계성, 통제성	연속기둥의 방향/축의 형성, 중심역할로 공간적 질서 제공
창	프라이버시, 통제성, 안전성	빛의 유입 및 전망 제공, 시각적 초점 형성, 개방정도에 따른 공간의 성격 결정
재료의 질감/색/패턴	심미성, 정체성, 다양성	경계 형성, 방향성, 음향조절
가구	사회성, 심미성, 프라이버시	공간의 중심, 시각적 초점 형성, 구상원간의 접촉 유도, 공간의 성격결정, 영역 확보
조명	프라이버시, 안전성, 심미성	장식성, 빛의 집중으로 주의와 흥미를 유발, 조도차를 이용한 경계 형성 및 프라이버시의 확보

5. 결론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인간환경의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의 상실'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곧 개체성 상실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이 환경과 융합하지 못하여 환경으로부터 소속감을 상실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런 문제점은 실내공간에 적절한 장소성을 부여함으로써 건축환경과 거주자간의 감각적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주거공간은 가장 기본적인 장소의 시발점이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고 사색할 수 있는 장소성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

장소를 형성하는 공간적 특성으로는 중심, 축과 방향성, 경계 및 에워쌈을 들 수 있다. 중심은 구심적 힘과 원심적 힘 사이의 긴장감을 만들어냄으로써 장소성의 본질을 구성한다. 중층적 구조인 장소는 필연적으로 축과 방향성을 내포하며, 경계나 에워쌈의 폐쇄 정도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결정되고 장소가 형성된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실내디자인 요소로는 공간을 한정하고 특성지우는 모든 요소가 총체적으로 해당되지만, 특히 공간을 직접적으로 한정하고 경계지우는 벽·천장·바닥·기둥, 초점의 역할을 하는 가구, 빛과 전망을 제공하는 창, 마감재료의 질감과 색, 조명 등을 들 수 있다.

장소는 환경지각적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독자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거주자의 심리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주거의 본질로서의 체험의 장소가 만들어진다. 주거공간에서 장소성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연관되는 환경심리적 요소들은 달리 표현하면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필요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통제성, 프라이버시, 정체성, 안전성, 위계성, 심미성, 다양성, 사회성 등에 대한 욕구들이다.

장소성은 확대 해석될 때 지역성과 시대성과 연관된다. 지역성과 시대성이 반영된 장소성의 창출이 지속적이고 생명력있는 공간의 창출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성이나 전통성의 부각은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장식적인 매개를 이용한 장소성의 표출이 아니라 시대성에 입각한 공간에 대한 근원적 해석과 접근방법을 실내공간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장소성의 창출이 가능하다. 장소성이 구현된 공간은 우리에게 의미있게 경험되고 기억되는 공간, 기억된 경험을 통해 공간 사용의 극대화가 가능한 공간, 정체성의 창출로 오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된다.

26) 본 표에서는 연관성이 깊은 요소를 주로 열거했으나, 각 요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1. Bruno Zevi, 공간으로서의 건축(최종현·정영수 역), 세진사, 1990.
2. C.Norberg-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정영수·윤재희 역), 세진사, 1984.
3. C.Norberg-Schulz, 건축론(정영수 역), 세진사, 1987.
4. C.Norberg-Schulz, 실존·공간·건축(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5. C.Norberg-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진경돈, 이정국 역), 미진사, 1994.
6. Charles W. Moore, 찰스 W. 무어 작품집(김정신 역), 도서출판 갑을, 1985.
7. Charles W. Moore, 주택의 장소성(곽해선 역), 국제, 1974.
8. Mario Botta, 마리오 보타 작품집, 집문사, 1987.
9. Van de Ven, 건축공간론(정진원, 고성룡 역), 기문당, 1987.
10. W. G. Lesnikowski,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박순관 외 공역), 국제출판공사, 1986.
11. 김광현, 공간에서 장소로, 건축학회지 22권 82호, 1987.
12. 우수영, 현대건축공간에서 표현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13.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1988.
14.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벽의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15.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의 이론과 구성체계 요소의 분석 연구, 한국살내디자인학회지 3호, 1994.
16. 정일교, 건축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17. 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18. 함정도, 살내디자인과 에로티시즘, 기문당, 1993.
19. Yi-Fu Yuan, 공간과 장소(정영철 역), 태림문화사, 1995.
20. J rgen Joedicke, 건축의 공간과 형태(윤재희/지연순 역), 세진사, 1995.
21. Eugene J. Johnson, 찰스 무어 건축과 평론(박형진·최두원 역), 공간에술사, 1991.
22. E. T. Hall,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1966.
23. Piera Scuri, Design of Enclosed Space, New York, Chapman & Hall, 1995.
24. S. Giedion, Space ·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25. Stanley Abercrombie, A Philosophy of Interior Design, Harper & Row, 1990.
26. Stuart Miller & Judith K. Schlitt, Interior Spa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5.

〈접수 : 1996. 2.28〉